

LOCAL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나주, 영산포에 K-푸드 글로벌상권 조성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이 7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는 전국 182개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수출 실적과 조직 운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긴다. ‘최우수’ 등급은 평가 총점 90점 이상을 받은 단지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2000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체계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고품질 배 생산과 수출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글로벌 GAP 인증을 포함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와 함께 선별, 포장, 유통 등 생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품질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왔다.

또한 조직화 교육을 강화해 생산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 통합 청년포털 착수 주거·일자리 정보 등 제공

여수시는 청년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청년포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년포털’은 결혼,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정보를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다.

시는 정책 제안과 질의응답, 설문 조사 기능을 갖춘 양방향 소통 공간으로 구성돼 청년들의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도 구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0월 ‘청년포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과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도 상권활성화 공모 선정...2029년까지 60억원 윤병태 시장 “지역경제 회복·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나주시가 영산포 흥어거리 중심의 영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 상권활성화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9년까지 5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해 K-푸드 기반의 글로벌상권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공모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나주는 영산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율상권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권활성화사업은 ‘영산강 15일의 기적, 흥어의 꿈-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벌 상권’을 주제로 한다.

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상권 브랜드 및 특화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영산포 K-푸드 특화거리 조성, 로컬관광 연계 축제 등 총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2023년 8월 영산포 자율상권활성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 설립, 공청회, 전남도 승인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

사업은 영산포자율상권조합과 상권전문관리자의 협업 체계로 운영한다.

이외에도 지역 내 주요 상권인 원도심과 남평을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병행 추진 중으로 시는 중장기적인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과 상생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공모 선정을 통해 영산포만의 특색 있는 상권 형성과 지역 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추진을 마무리하면서 흥어거리 일대에 십터 조성, 스토리텔링 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등 기초 인프라를 정비했으며 2026년부터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남도풍경연구소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흥-남도풍경연구소, 관광 활성화 협약 체결 사진집 발간·사진전 등 개최...풍경·축제 홍보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남도풍경연구소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흥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최근영 남도풍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도풍경연구소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남도의 자연과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해 온 비영리 연구단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영의 그림 같은 남도풍경 이야기’ 밴드를 중심으로 회원수 8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에 활

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도풍경연구소는 회원들과 장흥의 아름다운 풍경과 축제 사진 등 촬영해 사진집 발간·사진전 개최에 협력하고, 장흥군은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로 협약할 계획이다.

연구소 회원들이 촬영한 장흥군 사진은 장흥군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관광의 체계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장흥군과 남도풍경연구소의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도풍경연구소와 함께 지역 고유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영암서 전국 첫 유기농 트리티케일 종자 수확

학산면 사등마을서 700kg...친환경 녹비 활용

영암군은 최근 학산면 사등마을을 들녘에서 전국 최초 유기농으로 재배된 트리티케일 종자가 수확됐다고 23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추위 속에서도 잘 자라고 깊이 뿌리를 내려 재배 토양의 지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수확하지 않고 자란 그대로 갈아엎어 땅에 환원하면 식물성 친환경 퇴비인 녹비로 사용해 토양 건강을 높여준다.

특히 화학비료나 다른 퇴비 없이도 지속가능한 재배 토양을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확은 영암 농가와 농촌진흥청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수확된 트리티케일은 학산면 시범포장 1650㎡에서 농업과학원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생육 상태와 재배기술을 검증했다. 총 수확량은 약 700kg으로, 시범포

장에서 재배한 사정을 고려하면 우수한 실적이다.

무엇보다 유기농 방식으로도 식물성 비료인 녹비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해 앞으로 확대 재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수확된 종자 일부는 농업과학원에 연구용으로 제공되며, 나머지는 생협 ‘한살림’에서 친환경 농업 재료로 농가에 판매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군과 농업진흥청은 학산면 신안정마을 등 약 13ha로 트리티케일 재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침수피해 대비...장성배수펌프장 정비

장성군은 최근 황룡면 월평리 158-1에서 ‘장성배수펌프장’ 사전 점검·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배수펌프장은 장성읍·황룡면 일대 배수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배수펌프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0년 38억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군은 2023년 33억원을 들여 수문일체형 펌프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난대비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현재 유수지 5400㎡ 규모에 모터펌프 3

대, 수문일체형 펌프 5대를 갖추고 있다.

펌프와 모터 8대를 동시에 가동하면 시간당 3만2640t의 물을 배수할 수 있어 읍시가지, 농경지 침수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군은 우기를 앞두고 시행된 이번 사전 점검에서 펌프 작동 상태와 전기설비 이상 유무, 배수로 상태 확인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마쳤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농번기 현장 행정 강화

농업인 격려·지원 방안 논의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영농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이상의 군수는 정찬행 함평군 양파생산자협회장과 모내기 파종 현장 등 총 3곳을 방문해 영농 환경을 점검하고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해보면의 대규모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현장도 함께 살폈다. 월야



면 양파 수확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농가와 근로자의 고충을 들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